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어학원은 5층 규모의 빌딩,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이 청소를 해서 깨끗한 편이지만 환경이 환경이다 보니 벌레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필리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 어학원 숙소는 호텔이나 다른없는 환경이라고 느껴졌습니다.</p> <p>UP 마닐라는 마닐라에 위치해 있었고 체류기간 동안 한번 다녀왔는데, 가장 오래된 캠퍼스라 그런가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1교시는 impact issue라는 생활 전반에 관한 이슈 (교통체증, 혼전동거, 친구 사이 돈 문제 등)에 관해서 1대1 토론을 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p> <p>2교시는 멀티 미디어 클래스로 뮤직비디오, 단편 영상, 영화 예고편 등을 보면서 직접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는 그룹 수업이었습니다.</p> <p>3교시는 토익 스피킹 그룹 수업이었고, 교재와 모의 테스트를 통해 토익 스피킹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4교시는 1대1 수업이었는데 스피킹, 리딩, 익스프레션 세가지를 중점으로 진행했습니다.</p> <p>5교시는 영어 속담과 격언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1대1 수업이었고</p> <p>6교시는 영단어 공부를 하는 1대1 수업</p> <p>7교시는 토익 스피킹 그룹 수업을 한번 더 했고</p> <p>8교시는 미국인 선생과 함께하는 리딩 위주의 그룹 수업이었습니다.</p> <p>과제같은 경우 토익 스피킹은 녹음을 해와서 자신의 발음이나 억양을 고쳐 나가는 것이 있었고 다른 수업의 경우 질문란을 채워온다던지 단어를 암기해온다던지 거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라 부담은 없었습니다.</p>

	<p>강사진 같은 경우 필리핀 사람들 영어 역량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학원 강사들은 미국 역량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해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p> <p>수업준비는 교재랑 필기구만 있으면 되고, 휴대폰이랑 전자사전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첫째 주 주말에는 수빅에 위치한 리조트에 갔습니다. 뷔페 가격이 700페소 였는데 좀 과하다 싶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영복, 래쉬가드가 있으면 좋은 한데 나이키나 아이다스 반바지처럼 스포츠 웨어도 상관 없습니다.</p> <p>고아원 봉사도 갔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고 아이들도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더군요. 다만 수용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체감이 되었습니다.</p> <p>요트 트립은 따로 지불하는 비용 없이 요트에 타서 치킨이랑 맥주 먹고, 수영할 사람들 구명조끼 입고 수영하고 그렇게 놀았어요.</p> <p>UP 마닐라 대학을 한번 갔었는데 오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마닐라는 24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하더군요. 생각과는 달리 치안문제 같은거는 없었습니다. UP 학생들이랑 간단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박물관이랑 MALL OF ASIA에서 쇼핑하고 다시 수빅으로 돌아왔습니다.</p> <p>이 외에도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식도 몇 번 했습니다. 바에도 갔고 식당에도 가고, 기숙사에서 바비큐 파티도 한번 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6월에 막 도착했을 때는 사우나 그 자체 였습니다. 찜통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1주 지나니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서 그나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p> <p>하루에 거의 무조건 한번씩 비가 왔는데, 보통 1시쯤에 쏟아지고 1시에 오지 않을때는 저녁에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밤만 되면 비가 오지 않을때도 항상 천둥이 쳤습니다.</p> <p>특이사항으로 양말을 챙겨갔는데 단 한번도 신지 않았습니다. 모든 한국인 학생들이 매일 슬리퍼나 샌달을 신었습니다. 나중에 어학연수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양말 챙겨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기본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라 그런지 딱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매 치기 당한적도 없고, 다만 클럽에서 지갑이랑 핸드폰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긴 했습니다.</p> <p>쇼핑몰을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입구에 가드가 서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을 보여주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p> <p>안전보다 걱정해야할건 바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심한 바가지를 경험해본적은 없지만 택시 가격을 잘 모를 경우 보통 200페소 넘게 부르더군요. 원래 120이면 탈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현지 경찰이 한국인 학생에게 길거리 흡연이나 무단횡단을 시비로 돈을 뜯으려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필리핀이란걸 감안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앞서 말했듯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기숙사 시설은 호텔에 가깝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기숙사 외에 다른 곳에서 숙박한 일은 없었습니다.</p> <p>방 하나당 세명이 사용하고, 세명분의 옷장과 책상, 서랍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샤워기에서 온수도 나옵니다.</p> <p>일주일에 3번 빨래통에 빨래를 넣어서 세탁실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날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호텔처럼 직원들이 매일 방을 청소해줍니다.</p>
식사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했는데, 한국 음식이 나오긴 하는데 재료가 필리핀꺼라 그런지 필리핀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닌 기묘한 무언가가.. 저녁은 보통 나가서 해결했습니다. 올롱가포 말고 수빅 내에 있는 식당들은 퀄리티가 다 좋은 편입니다. 필리핀 음식 보다는 피자나 파스타 같은 걸 많이 먹었고, 가격은 올롱가포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스테이크나 해산물이 아닌 이상 한국보다는 싼 편입니다.</p> <p>다만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때는 물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물 보다는도 얼음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갈이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시설 자체가 기숙사랑 교실이 같이 있는 구조라서 통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에 밖으로 나갈 때는 FB라는 밴을 주로 이용했고, 올롱가포</p>

	안에서는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있었는데, 트라이시클은 그닥 많이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갈때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120이면 탈 수 있지만 가격을 잘 모를 경우 200을 부르면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더군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부 식당, 쇼핑, 기념품 등 생활비	335,700	출국 전 300달러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
생활비 추가 환전	72,000	현지 ATM에서 3000페소 추가 인출
합계	1,113,7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우산 필수

양말 필요없음

환전은 100달러 짜리로 준비해와서 현지에서 환전할 것. 400~500이면 충분할 듯
비자 카드를 지원하는 상점이 한정되었습니다. atm에서 뺏을시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수건, 속옷 넉넉하게 챙길 것

- 생필품은 현지서 구입하는게 싸다고는 하지만 저는 집에서 챙길 수 있는건 챙겨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지 같은 경우 처음에 하나만 주고 더 이상 보급해주지 않습니다. SM몰이나 하버포인트,
젤리비 등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보면 12개에 1100페소 꼴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건이나 속옷 같은 경우 새것 보다는 언제 버려도 상관없을 것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날에 캐리어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집업이나 후드티 같이 따뜻한 옷 한 벌 챙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랑 물갈이
로 아픈 학생들이 많았는데 두꺼운 옷을 안챙겨와서 힘들어 하더군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어학연수 지원하기 전, 전 원래 옛날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취미도 영어노래 가사 번역이나 영화 자막 만들기였습니다. 초,중,고 다니면서도 영어 성적은 항상 좋은 편이었지만 정작 외국인과는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 뽑혀서 한달간 공부하다 올 수 있었습니다. 첫날 레벨 테스트에서는 8등으로 들어왔고 파이널 테스트에는 3등을 기록해서 졸업연설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긴 했지만 제 스피킹 실력은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어학연수에 지원하기 전 외국인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은, 아시아 사람들은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실수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나 영어를 못하기에 영어를 배우러 필리핀에 온 것이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바뀌는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 마디라도 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래서 여기로 영어 배우러 온 것인데 실수를 한다면 이상한게 뭐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실제로도 어학원 선생님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졸업할 때 쯤 되니 제 생각을 90퍼 정도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초적인 문법과 단어를 사용하고, 고급어휘는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영어권 사람들과도 자신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는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아주 더할 나위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어학연수는 해외여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 목표가 영어 공부인 것이고 문화경험이나 여행 따위는 부가적인 것이죠. 그렇기에 학교에서 돈을 지원받아 사실상 항공비만 지불하고 현지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어학연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를 숙지한다면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실력이 아예 밑천이라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번역이 취미였고, 말은 한마디도 못했지만 이해는 가능했기에 영어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위권 학생들도 글로벌 빌리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관광경영 같은 전공에서 관련 경험을 쌓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기초적인 단어, 문법도 부족하고 평생 영어랑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에도 필리핀에서 한달만에 영어 실력이 꺾충 뛰어오를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원한다면 저는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제가 부산에서 한달 산다고 해서 부산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는 법인데, 하물며 외국어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적어도 교양 대학영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점들을 숙지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런 뜻깊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순천향대와 국제교육교류처, 타임즈코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UP 마닐라 캠퍼스 투어 이후 방문한 박물관



주말 요트 트립 액티비티에서 찍은 사진



어학원에서 첫날 수빅 시티 투어



원어민 티쳐 아담과 수업



순천향대 학생들과 회식



주말 리조트 액티비티